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4~1/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도표로읽는경전입문:방대한팔만대장경의세계가도표로한눈에들어온다	정운/배종훈 그림	민족사
2	보리도차제의마르티일체지로나아가는지름길:수행의길과경론의핵심들을담고있는논서	뻰첸라마 롭상예	운주사	7	도표로읽는불교입문	이자랑,이필원	민족사
3	정토삼부경(불교경전7)무량수경관무량수경아미타경		민족사	8	사찰의비밀(일주문에서대웅전뒤편산신각까지구석구석숨겨진)	자현 지음	담앤북스
4	부처님의생애(보급판)2판	조계종교육원	조계종출판사	9	인생수업(잘물든단풍은봄꽃보다아름답다)	법륜/유근택 그림	휴
5	월호스님의선가귀감강설	월호 지음	조계종출판사	10	가장행복한공부(청화큰스님말씀)	청화 지음	아시아문화커뮤니티

책세상

절집의 '신 스틸러', 그들의 진귀한 비밀 캐내다



사찰속숨은조연들
노승대 지음
불광 펴냄/3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찰 구석구석 기묘한 존재들의 진기한 내력

사찰은 신전(神殿)이다. 전각 한 가운데에 위치한 부처님을 제외하고도 사찰 구석구석 '초월적'인 능력과 '기괴한' 외모(?)를 지닌 존재들이 조각이나 그림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큰 사찰인 경우는 그 수가 100명 이상이 되어 일일이 세기 힘들 정도이다. 불교 경전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거느린 권속(眷屬)까지 헤아리면 사찰에 구축된 세계관은 그리스 로마신화나 북유럽 신화의 세계만큼이나 거대한 규모이다.

요즈음에 이들은 간혹 만화나 영화, 웹툰 등에 등장하기도 한다. 웹툰 원작 영화 〈신과 함께〉에서 망자(亡者)인 주인공을 심판하는 왕들(시왕)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영화 〈사바하〉에서 악귀 잡는 악신으로 일컬어진 네 신(사천왕)을 비롯해 만화 〈극락왕생〉에 등장하는 보살들과 도명존자, 무독귀왕 등이 그렇다. 이들은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낯설고 신비로운 존재로 명품 조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그런데 이들이 펼치는 판타지 이면에는 기원전 인도서 시작되는 오래되고 광범위한 역사와 갖가지 사연이 있다. 그럼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절집에 자리하는 것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가히 '신(神)'이라 할 수 있는 사찰 속 기묘한 존재들의 숨은 내력을 조명한다. 종교 역사, 신화와 설화를 종횡무진 오가며 밝혀진 그들의 정체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단순한 흥미를 넘어 남다른 의미로 놀라움을 선사한다.

40여 년간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며 귀동냥해서 수집한 이야기 보따리들을 통해 저자는 우리 절집에 자리한 사후세계는 물론 천상의 세계로 안내하며 진귀한 경험을 선물한다.

우리가 사찰을 하나의 무대라고 상상해 보자. 그 무대의 주인공은 단연 '부처님'이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끄는 '명품 조연'들이 있으니…. 그들은 사찰에 들어오는 이들을 향해 주먹을 날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거나, 여섯 개 팔에 날 선 무기를 지닌 채 성난 표정을 짓고 있다. 그 옆엔 이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천진한 미소를 지닌 동자들이 뛰놀고,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면서도 한없이 바빠 보이는 존재도 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고, 왜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

전각과 불상, 탑 등을 이야기하는 여느 문화재 안내서와 달리 조각이나 그림으로 남아 절집에 모여 사는 동식물, 우리 전설 속 존재 등 뜻밖의 대상을 소개한 전작으로 주목 받은 저자가 이번에는 가히 신(神)이라 할 수 있는 사찰 속 기묘한 존재들의 진기한 내력을 뒷조사 한다. 그렇다면 40여 년 사찰 문화답사 경력의 전문가인 저자가 만난 '절집의 숨은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절집 신비한 존재 찾아 떠나는 모험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불교서 말하는 사후세계, 즉 명부(冥府)의 존재에 관한 내용이다. 지옥 중생 구제를 대원(大願)으로 삼은 지장보살과 협시(夾侍)인 도명존자 · 무독귀왕, 그리고 열 명의 지옥 심판관인 시왕과 중생의 생전 선악(善惡) 행위를 빠짐없이 기록해 보고하는 선악동자 등이 그 주인공이다.

제 2부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를 보호한다고 하여 '호법신중(護法神衆)'이라 불리는 존재들의 이야기이다. 사찰 입구서 위협적인 모습으로 방문자들을 맞는 사천왕과 금강역사, 여덟 그룹의 신중 부대인 팔부신중, 신중들을 호령하는 젊은 장군 신 위태천 등이 거론된다. 마지막 3부는 부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오른팔과 왼팔 역할을 하는 협시, 그리고 괴팍한 성격을 가졌지만 중생의 소원을 잘 들어준다고 알려진 영험한 존재 나한을 다루었다.

저자는 이들 존재가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어 우리 사찰에 자리하게 된 경위까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추적한다. 그 근거는 종교와 역사의 오랜 문헌과 기록, 민간에 이어져 온 설화와 신화, 옛 인도 땅과 중국, 우리나라 등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저자는 이들을 종합해 이제 미지의 존재와 공간이 되어버린 이 책의 주인공들과 그 세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걸 목표로 한다. 한 예로 망자가 경험하게 될 명부 여행의 과정을 한국판 〈신곡〉을 그리듯 생생하고 흥미진진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우리 불교문화와 전통문화 속 진귀한 세계로 떠나는 모험에 기꺼이 가담케 한다.



사진은 오도전륜대왕도. 상단 중앙의 봉익관을 쓴 오도전륜대왕과 판관 등의 모습이 보이고, 하단에는 지옥과 지옥문이 묘사돼 있다.

웹툰 〈신과 함께〉서 주인공인 자홍 심판하던 명부의 왕들
영화 〈사바하〉서 악귀 잡는 악신으로 소개된 네 장군 신들
이들은 누구이고, 왜 우리 절집에 자리하고 있는지 조명해

한국형 판타지의 신 스틸러가 되다

사실 우리는 비단 사찰의 조각과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만화,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의외의 순간 이들을 만나왔다. 각 부에 소개되는 사찰의 신비한 존재들은 한국형 판타지의 '신 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꼽자면, 웹툰 원작의 영화 〈신과 함께〉에는 주인공인 망자(亡者) 자홍의 생전 선악을 심판하는 명부의 존재로 염라대왕을 필두로 한 '시왕'이 등장한다. 영화 〈사바하〉에는 악귀를 잡는 악신으로 '사천왕'이 소개되고, 인기 만화 〈극락왕생〉에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문수보살'을 비롯해 주인공을 돕는 '도명존자'와 그의 라이벌 '무독귀왕'이 등장한다. 제목을 상징적인 의미로 차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화 〈아수라〉나 〈야차〉의 경우가 그렇다.

이렇듯 친숙하고도 낯선 존재들은 불교의 세계관을 응축한 공간 안에 조각이나 그림으로 봉안되어 나름의 일가를 이룬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타임라인 위에서 현실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생 구제를 위해 저마다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신비함 이면에 새겨진 거대한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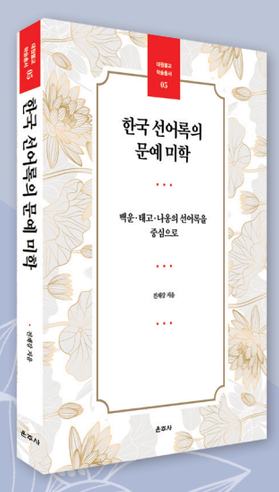
놀라운 것은 이들 이면에 새겨진 역사적 맥락을 더듬어 볼 때 거대한 지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원전 인도에서 서역, 중국을 거쳐 우리 땅에 도래하였다. 더욱이 그 오랜 기간, 광대한 지역을 건너오며 각 지역 문화와 습합 및 변화 과정을 거쳤다. 이는 그 문화권에서 숭앙된 타 종교나 민간신앙은 물론 전쟁이나 기근 등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사건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한 예로 신중 가운데는 비슈누, 시바 등 힌두교의 신이나 우물 신, 측신 등 우리나라 재래신도 포함된다. 한편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혼란 상황 속에서 조성된 조선시대 사천왕상 발 밑에는 왜군, 청나라 병사의 조각이 악귀 대신 자리한다.

중생의 삶에 더욱 가까운 존재로 민중에게 있어 자신들을 지켜줄 수호신이자 복, 장수 등을 빌 사복신(賜福神)이 된 불교의 신. 이들은 당시 사람들의 염원과 소망, 불안과 고통을 읽을 수 있는 역사적 증거로서 단순한 흥미만으로 읽어 넘기기 힘든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삶의 여러 순간 그들을 향해 기도해 온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세대를 거듭하며 생경해졌으며 더욱 신비하기만 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단순 흥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들의 오리지널리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그 과정서 독자는 절집에 자리한 이들의 오랜 역사에 한 번 놀라고, 신비함 이면의 진짜 의미에 두 번 놀라게 될 것이다. 이제 저자의 안내에 따라 저승인 명부는 물론 불교의 신들이 사는 하늘세계와 부처님의 일가를 이룬 협시와 나한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자.

▲저자 **노승대**는?

경기도 양주서 출생했다. 1975년 입산해 광덕 스님을 은사로 모셨으며 10여 년 뒤 하산했다. 구도의 길에서는 내려왔으나 그 길에서 찾던 '우리 문화'에 대한 열정만큼은 내려놓지 않았다. 1993년부터 문화답사모임 '바라밀문화기행'을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2000년부터 7년간 인사동문화학교 교장을 맡기도 했다. 인사동문화학교 졸업생 모임인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과도 전국 문화답사를 다닌다. 그는 가족 같은 동호인들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공부하는 것을 금생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항상 길 위에 있다. 답사 틈틈이 〈불광〉 〈사람과 산〉 〈템플스테이〉 등에 우리 문화와 관련된 글을 기고해 왔으며, 저서로는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바위로 배우는우리 문화〉가 있다.

불가佛家문학과 선가禪家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대원불교학술총서 • 5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백운·태고·나옹의 선어록을 중심으로

전재강 지음

초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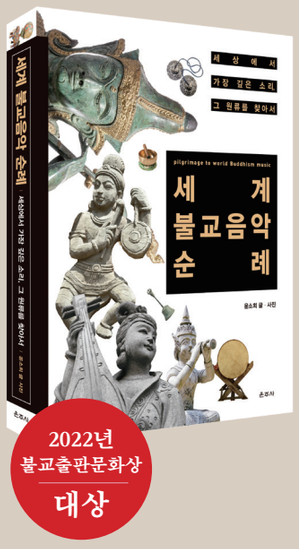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신국판/312쪽/값 20,000원

불교음악 범패의 원류를 찾아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찾아 기록한 20년 여정의 대기록!

세계 불교음악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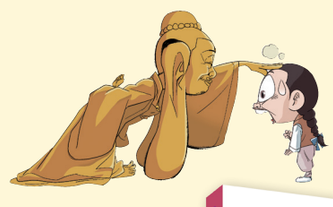


2022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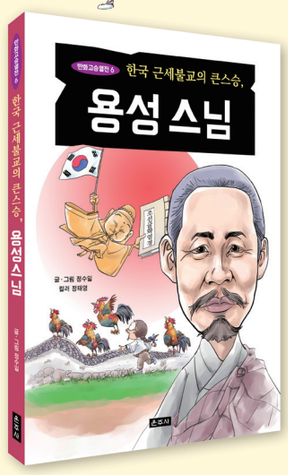
왜 불교음악은 나라마다 다른가? 각국의 불교음악은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 불교음악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과 풍부한 사진으로 보여준다.

윤소희 지음/사륙배판/440쪽
값 28,000원





재미있는 만화로 만나는 용성 스님 일대기!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